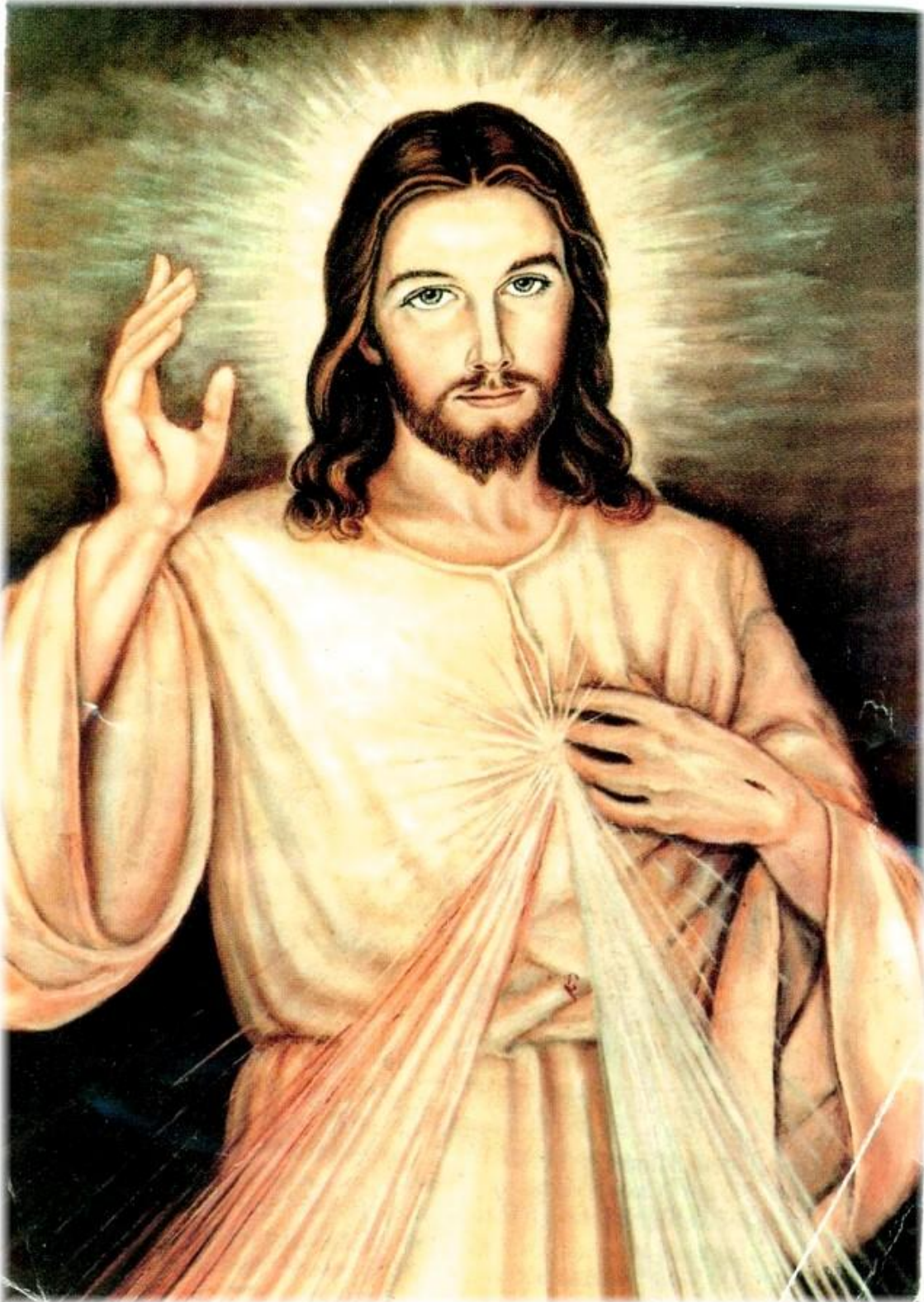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월 기도문 - [성녀 파우스티나]



예수님:

"나는 네가 이 9 일 동안 나의 자비심의 샘에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며, 그들의 고된 생활에,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은총은 무엇이나 끌어내기를 바란다. 날마다 너는 나의 성심께로 다른 무리의 영혼들을 데려오고 나의 자비심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이들 모든 영혼들을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날마다 너는 이 영혼들을 위한 은총을 나의 쓰라린 수난의 힘을 의지해 나의 아버지께 간청하여라."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 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전 대양을 쏟아 부을 것이다. 고해 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영혼은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얻을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수문이 열린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 오는 것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라." (일기 699)

"예수님, 나는 이 9 일기도를 어떻게 바치는지 또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께로 우선 어떤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고 파우스티나 수녀는 기도했다.

"예수님은 매일 당신 성심께 데려올 영혼들을 친히 내게 말해 주겠다고 응답하셨다"

첫째 날

"오늘 모든 인류를 특별히 모든 죄인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몰아넣은 크나큰 슬픔 속의 나를 위로 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심이 본성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살피지 마시고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에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며 우리가 그곳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당신을 성부와 성령과 일치시키는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당신께 간청하나다.

영원하신 아버지, 지극히 동정심 많은 예수 성심 안에 싸인 온 인류에게,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신

눈길을 보내 주소서. 예수의 수난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 자비심의 전능한 힘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First Day

"Today bring to Me all mankind, especially all sinners,

and immerse them in the ocean of My mercy. In this way you will console Me in the bitter grief into which the loss of souls plunges Me."

Most Merciful Jesus, whose very nature it is to have compassion on us and to forgive us, do not look upon our sins but upon our trust which we place in Your infinite goodness. Receive us all into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and never let us escape from It. We beg this of You by Your love which unites You to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all mankind and especially upon poor sinners, all enfolded in the Most Compassionate Heart of Jesus. For the sake of His sorrowful Passion show us Your mercy, that we may praise the omnipotence of Your mercy for ever and ever. Amen.

둘째 날

"오늘은 내게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을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심원한 자비심에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나의 극심한 수난을 인내하도록 그들은 내게 힘을 준다. 수로를 통하듯이 그들을 통하여 인류 위에 나의 자비심이 흘러가게 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좋은 것은 모두 내어 주시는 예수님, 당신의 구원사업에 봉헌된 여인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증가시켜 주시어 그들이 자비심에 합당한 과업을 수행하여 나가게 함으로써 그들을 보는 모든 이들이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포도밭에 선택된 자들의 무리에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 위에-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시며 당신 축복의 힘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을 감싸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성심의 사랑을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빛을 나누어 주시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한 목소리로 당신의 다함없는 자비심을 끝없이 찬미 찬송하게 해 주소서. 아멘.

Second Day

"Today bring to Me the Souls of Priests and Religious,

And immerse them in My unfathomable mercy. It was they who gave me strength to endure My bitter Passion. Through them as through channels My mercy flows out upon mankind."

Most Merciful Jesus, from whom comes all that is good, increase Your grace in men and women consecrated to Your service,* that they may perform worthy works of mercy; and that all who see them may glorify the Father of Mercy who is in heaven.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the company of chosen ones in Your vineyard upon the souls of priests and religious; and endow them with the strength of Your blessing. For the love of the Heart of Your Son in which they are enfolded, impart to them Your power and light, that they may be able to guide others in the way of salvation and with one voice sing praise to Your boundless mercy for ages without end. Amen.

* In the original text, Saint Faustina uses the pronoun "us" since she was offering this prayer as a consecrated religious sister. The wording adapted here is intended to make the prayer suitable for universal use.



세째 날

"오늘은 열심히하고 충직한 영혼들을 모두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내게 위로를 주었다. 그들은 쓰라린 비통의 마다 한 가운데서 위로의 물방울이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당신 자비의 보고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에게 당신의 은총을 아주 넘치게 나누어 주소서.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그 곳을 떠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 성심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천상 아버지께 대한 지극히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이 은총을 간청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상속자들에게처럼 충직한 영혼들에게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소서. 예수의 수난을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끊임없는 보호로써 그들을 감싸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며 거룩한 믿음의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천사들의 무리와 성인들과 더불어 다함없는 당신의 자비심을 끝없이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Third Day

"Today bring to Me all Devout and Faithful Souls,

And immerse them in the ocean of My mercy. These souls brought me consolation on the Way of the Cross. They were a drop of consolation in the midst of an ocean of bitterness."

Most Merciful Jesus, from the treasury of Your mercy, You impart Your graces in great abundance to each and all. Receive us into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and never let us escape from It. We beg this grace of You by that most wondrous love for the heavenly Father with which Your Heart burns so fiercely.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faithful souls, as upon the inheritance of Your Son.

For the sake of His sorrowful Passion, grant them Your blessing and surround them with Your constant protection. Thus may they never fail in love or lose the treasure of the holy faith, but rather, with all the hosts of Angels and Saints, may they glorify Your boundless mercy for endless ages. Amen.



네째 날

"오늘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지극히 동정심 많으신 예수님, 당신은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아직도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당신을 모르는 자들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당신 은총의 빛을 그들에게 비취 주시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당신의 놀라운 자비심을 극구 찬양하게 하시며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아드님을 믿지 않고 있으며 당신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영혼에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을 복음의 빛 앞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들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있나이다. 그들도 당신 자비의 한없이 너그러우심을 끝없이 극구 찬양하게 하소서.

Fourth Day

"Today bring to Me those who do not believe in God and those who do not know Me,

I was thinking also of them during My bitter Passion, and their future zeal comforted My Heart. Immerse them in the ocean of My mercy."

Most compassionate Jesus, You are the Light of the whole world. Receive into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the souls of those who do not believe in God and of those who as yet do not know You. Let the rays of Your grace enlighten them that they, too, together with us, may extol Your wonderful mercy; and do not let them escape from the abode which is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the souls of those who do not believe in You, and of those who as yet do not know You, but who are enclosed in the Most Compassionate Heart of Jesus. Draw them to the light of the Gospel. These souls do not know what great happiness it is to love You. Grant that they, too, may extol the generosity of Your mercy for endless ages. Amen.

*Our Lord's original words here were "the pagans." Since the pontificate of Pope John XXIII, the Church has seen fit to replace this term with clearer and more appropriate terminology.



다섯째 날

"오늘은 갈라진 형제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나의 쓰라린 수난 중에 그들은 나의 몸과 마음 즉 나의 교회를 잡아 찢었다. 그들이 교회 일치로 돌아올 때 나의 상처들은 치유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수난의 고통을 덜어 준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예수님, 선하심 자체이신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자비를 찾는 사람들에게 빛을 거절치 않으시나이다.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갈라진 우리 형제들의 영혼들을 받아 주소서. 당신의 빛으로 그들을 교회 일치에로 이끄시고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그들도 당신 자비심의 한 없이 너그러우심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갈라진 우리 형제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축복을 허투루 써버리며 자기들의 오류를 완고하게 주장함으로써 당신의 은총을 오용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신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의 오류를 살피지 마시고 당신 아드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아 받으신 쓰라린 수난을 보시고 또한 그들도 당신 아드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으므로 그들도 당신의 위대한 자비심을 끝없이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Fifth Day

"Today bring to Me the Souls of those who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My Church*,

and immerse them in the ocean of My mercy. During My bitter Passion they tore at My Body and Heart, that is, My Church. As they return to unity with the Church My wounds heal and in this way they alleviate My Passion."

Most Merciful Jesus, Goodness Itself, You do not refuse light to those who seek it of You. Receive into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the souls of those who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Your Church. Draw them by Your light into the unity of the Church, and do not let them escape from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but bring it about that they, too, come to glorify the generosity of Your mercy.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the souls of those who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Your Son's Church, who have squandered Your blessings and misused Your graces by obstinately persisting in their errors. Do not look upon their errors, but upon the love of Your own Son and upon His bitter Passion, which He underwent for their sake, since they, too, are enclosed in His Most Compassionate Heart. Bring it about that they also may glorify Your great mercy for endless ages. Amen.

*Our Lord's original words here were "heretics and schismatics," since He spoke to Saint Faustina within the context of her times. A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Church authorities have seen fit not to use those desig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explanation given in the Council's Decree on Ecumenism (n.3). Every pope since the Council has reaffirmed that usage. Saint Faustina herself, her heart always in harmony with the mind of the Church, most certainly would have agreed. When at one time, because of the decisions of her superiors and father confessor, she was not able to execute Our Lord's inspirations and orders, she declared: "I will follow Your will insofar as You will permit me to do so through Your representative. O my Jesus " I give priority to the voice of the Church over the voice with which You speak to me" (497). The Lord confirmed her action and praised her for it.



여섯째 날
"오늘은 온순하고 겸손한 영혼들, 그리고 어린이 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내 마음을 아주 닮았다. 그들은 내가 나의 비통한 고민 중에 빠졌을 때 나를 굳세게 해 주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제단에서 밤새워 기도하는 지상의 천사들처럼 보았다. 나는 그들 위에 은총의 폭포를 쏟아주겠다. 겸손한 영혼만이 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겸손한 영혼들을 내가 신임함으로써 돌보아 주겠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온순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어린이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모두 받아 주소서. 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며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향기 좋은 꽃다발로서 하느님은 친히 그 향기를 즐기십니다. 오, 예수여, 이 영혼들은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사랑과 자비에 대한 찬미를 끝없이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감싸여 있는 온순한 영혼들, 겸손한 영혼들, 어린이 같은 영혼들 위에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소서. 이들은 당신 아드님과 매우 닮은 영혼들로서 이들의 향기가 이 지상에서 당신 어좌에까지 올라갑니다. 자비와 온갖 선의 아버지, 이들을 보호하신 사랑과 그들을 비추어 주신 빛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모든 영혼들이 당신 자비심에 대한 찬송을 끝없이 노래하도록 온 세상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Sixth Day

Today bring to Me the Meek and Humble Souls and the Souls of Little Children,

and immerse them in My mercy. These souls most closely resemble My Heart. They strengthened Me during My bitter agony. I saw them as earthly Angels, who will keep vigil at My altars. I pour out upon them whole torrents of grace. I favor humble souls with My confidence.

Most Merciful Jesus, You yourself have said, "Learn from Me for I am meek and humble of heart." Receive into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all meek and humble souls and the souls of little children. These souls send all heaven into ecstasy and they are the heavenly Father's favorites. They are a sweet-smelling bouquet before the throne of God; God Himself takes delight in their fragrance. These souls have a permanent abode in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O Jesus, and they unceasingly sing out a hymn of love and mercy.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meek souls, upon humble souls, and upon little children who are enfolded in the abode which is the Most Compassionate Heart of Jesus. These souls bear the closest resemblance to Your Son. Their fragrance rises from the earth and reaches Your very throne. Father of mercy and of all goodness, I beg You by the love You bear these souls and by the delight You take in them: Bless the whole world, that all souls together may sing out the praises of Your mercy for endless ages. Amen.



일곱째 날

"오늘은 특별히 내 자비심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에 잠기게 하여라. 이들은 나의 수난을 대단히 애통해하며 나의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 왔다. 이들은 나의 동정심 많은 성심의 모상들이다. 이들은 저 세상에서 특별한 빛으로 밝게 빛날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지옥 불에 가지 않겠고 나는 특별히 그들 각자를 죽을 때에 보호하겠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당신의 성심은 사랑 자체이니, 당신 자비심의 위대성을 공경하고 특별히 들어 높이는 자들의 영혼을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받아 주소서. 이들이야말로 바로 하느님 친히 발휘하시는 능력으로 힘있는 자들입니다. 온갖 고난과 반대 세력 가운데서도 그들은 당신의 자비심을 믿고 의지하여 전진함으로써 당신과 일치하였습니다. 오, 예수님, 그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온 인류를 짊어졌습니다. 이들은 엄하게 심판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자비심이 그들을 자애롭게 감싸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의 더없이 광대하게 베풀어 주심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심을 공경하고 찬양하며 또한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는 그들 영혼 위에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은 살아 있는 복음입니다. 그들의 손은 자비의 행위로 가득차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넘쳐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 자비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오, 하느님, 간청하오니 당신께 의탁하는 그들의 희망과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심을 보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 있을 동안 뿐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자비심을 공경하는 영혼들을 예수님 친히 당신 영광처럼 보호해 주소서. 아멘.

Seventh Day

Today bring to Me the Souls who especially venerate and glorify My Mercy*,

and immerse them in My mercy. These souls sorrowed most over my Passion and entered most deeply into My spirit. They are living images of My Compassionate Heart. These souls will shine with a special brightness in the next life. Not one of them will go into the fire of hell. I shall particularly defend each one of them at the hour of death.

Most Merciful Jesus, whose Heart is Love Itself, receive into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the souls of those who particularly extol and venerate the greatness of Your mercy. These souls are mighty with the very power of God Himself. In the midst of all afflictions and adversities they go forward, confident of Your mercy; and united to You, O Jesus, they carry all mankind on their shoulders. These souls will not be judged severely, but Your mercy will embrace them as they depart from this life.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the souls who glorify and venerate Your greatest attribute, that of Your fathomless mercy, and who are enclosed in the Most Compassionate Heart of Jesus. These souls are a living Gospel; their hands are full of deeds of mercy, and their hearts, overflowing with joy, sing a canticle of mercy to You, O Most High! I beg You O God:

Show them Your mercy according to the hope and trust they have placed in You. Let there be accomplished in them the promise of Jesus, who said to them that during their life, but especially at the hour of death, the souls who will venerate this fathomless mercy of His, He, Himself, will defend as His glory. Amen.

*The text leads one to conclude that in the first prayer directed to Jesus, Who is the Redeemer, it is "victim" souls and contemplatives that are being prayed for; those persons, that is, that voluntarily offered themselves to God for the salvation of their neighbor (see Col 1:24; 2 Cor 4:12). This explains their close union with the Savior and the extraordinary efficacy that their invisible activity has for others. In the second prayer, directed to the Father from whom comes "every worthwhile gift and every genuine benefit," we recommend the "active" souls, who promote devotion to The Divine Mercy and exercise with it all the other works that lend themselves to the spiritual and material uplifting of their brethren.

여덟째 날

"오늘은 연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의 성혈의 폭포가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라. 이들도 모두 내게 매우 사랑스러운 영혼들이다. 그들은 나의 정의에 보상을 하고 있다.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너의 힘에 달려 있다. 내 교회의 보고에서 모든 은사를 끌어내어 그들 편에서 그들에게 주어라. 오, 만일 네가 그들이 받는 고통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 영신적 자선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나의 정의에 대한 그들이 빚을 갚을 것이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예수님, 당신은 친히 당신이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사랑스러우나 아직 당신 정의에 보상을 드려야만 하는 영혼들을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성심으로 부터 솟아 나오는 성혈과 물 줄기가 연옥의 불을 끄게하시고 또한 거기서 당신 자비심의 능력이 찬양받게 하여 주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으나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여 주소서. 당신 아드님 예수님의 애통스런 수난과 그 거룩하신 영혼이 당한 온갖 고통에 의지하여 당신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엄밀한 정의 아래 묶여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들어내 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과 동정심에 아무런 한계가 없음을 믿고 있오니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상처를 통해서만 그들을 보살피 주소서. 아멘.

Eighth Day

"Today bring to Me the Souls who are in the prison of Purgatory,

and immerse them in the abyss of My mercy. Let the torrents of My Blood cool down their scorching flames. All these souls are greatly loved by Me. They are making retribution to My justice. It is in your power to bring them relief. Draw all the indulgences from the treasury of My Church and offer them on their behalf. Oh, if you only knew the torments they suffer, you would continually offer for them the alms of the spirit and pay off their debt to My justice."

Most Merciful Jesus, You Yourself have said that You desire mercy; so I bring into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the souls in Purgatory, souls who are very dear to You, and yet, who must make retribution to Your justice. May the streams of Blood and Water which gushed forth from Your Heart put out the flames of Purgatory, that there, too, the power of Your mercy may be celebrated.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the souls suffering in Purgatory, who are enfolded in the Most Compassionate Heart of Jesus. I beg You, by the sorrowful Passion of Jesus Your Son, and by all the bitterness with which His most sacred Soul was flooded: Manifest Your mercy to the souls who are under Your just scrutiny. Look upon them in no other way but only through the Wounds of Jesus, Your dearly beloved Son; for we firmly believe that there is no limit to Your goodness and compassion. Amen.



아홉째 날

"오늘은 미지근한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 미지근한 영혼들 때문에 올리브 동산에서 나의 영혼은 너무나 무서운 혐오감을 받아야 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소서." 하고 외치게 된 이유였다. 그들을 위한 마지막 구원의 희망은 나의 자비심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지극히 동정심 많은 예수님, 당신은 동정심 자체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으로 미지근한 영혼들을 인도 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사랑의 불 속에서, 시체와 같이 당신을 그렇게도 깊은 혐오감으로 몰아넣은 이 나태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불붙게 하소서. 오, 지극히 동정심 많은 예수여,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아무 것도 없아오니 당신 자비심의 전능을 들어내사 열렬한 당신 사랑 속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성스러운 사랑의 선물을 그들에게 내려 주소서.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으면서도 미지근한 그 영혼들에게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여 주소서. 자비의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흠심한 수난과 세 시간 동안이나 매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그들도 당신 자비심의 심연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Ninth Day

"Today bring to Me the Souls who have become Lukewarm,

and immerse them in the abyss of My mercy. These souls wound My Heart most painfully. My soul suffered the most dreadful loathing in the Garden of Olives because of lukewarm souls. They were the reason I cried out: 'Father, take this cup away from Me, if it be Your will.' For them, the last hope of salvation is to run to My mercy."

Most compassionate Jesus, You are Compassion Itself. I bring lukewarm souls into the abode of Your Most Compassionate Heart. In this fire of Your pure love, let these tepid souls who, like corpses, filled You with such deep loathing, be once again set aflame. O Most Compassionate Jesus, exercise the omnipotence of Your mercy and draw them into the very ardor of Your love, and bestow upon them the gift of holy love, for nothing is beyond Your power.

Eternal Father, turn Your merciful gaze upon lukewarm souls who are nonetheless enfolded in the Most Compassionate Heart of Jesus. Father of Mercy, I beg You by the bitter Passion of Your Son and by His three-hour agony on the Cross: Let them, too, glorify the abyss of Your mercy. Amen.



Optional Opening Prayers

- You expired, Jesus, but the source of life gushed forth for souls, and the ocean of mercy opened up for the whole world. O Fount of Life, unfathomable Divine Mercy, envelop the whole world and empty Yourself out upon us. O Blood and Water, which gushed forth from the Heart of Jesus as a fountain of Mercy for us, I trust in You!

기도 방법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1 번씩 바친다.

✝ ●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 주님의 기도
Our Father

●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oly is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 성모송
The Hail Mary

● Hail Mary, full of grace.
Our Lord is with you.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Jesus.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

✝️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각 단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큰 묵주알에서

✠ ●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 Eternal Father, I offer you the Body and Blood, Soul and Divinity,
of Your Dearly Beloved Son Our Lord, Jesus Christ, in atonement for
our sins and those of the whole world.



각 단의 10 개의 묵주알 각각에서:

✠ ●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 For the sake of His sorrowful Passion, have mercy on us and on the whole world.


(2, 3 의 과정을 5 단에 걸쳐 반복함)

5 단을 모두 바친 후:

✝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3 번)

 Holy God, Holy Mighty One, Holy Immortal One,
have mercy on us and on the whole world.

Optional Closing Prayer

 Eternal God, in whom mercy is endless and the treasury of compassion inexhaustible, look kindly upon us and increase Your mercy in us, that in difficult moments we might not despair nor become despondent, but with great confidence submit ourselves to Your holy will, which is Love and Mercy itself.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번이라도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얻을 것이다" -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말씀 -

하느님 자비의 시간: 오후 3 시

"네가 3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거든 자주 나의 자비를 흠송하고 찬양하여 너 자신을 나의 자비에 완전하게 잠그어라. 온 세상을 위해,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나의 자비의 전능함을 청하여라. 그 순간에 모든 영혼을 위해 자비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일기 1572). "이 시간은 전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일기 1320)"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상의 당신의 죽음의 시간(오후 3 시)이 매일 공경받기를 바라신다. 그 시간은 자비가 정의 위에 우세하는 전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일기 1572)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비탄스런 수난을 묵상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가지신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흠송하고 찬미하며 예수님의 수난의 공로로써 우리 자신과, 전 세상,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간청하기를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가르치셨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을 바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십자가의 길을 바칠 시간이 없거든 잠깐 성당에 들러 성체 대전에 나아가 자비로 가득찬 내 성심을 찬양하여라. 성당에 갈 시간이 없거든 네가 있는 곳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 안에 네 자신을 잠그어라." (일기 1572)

- 자비의 시간(오후 3 시)에 바치는 기도-

예수님, 주님은 숨을 거두셨으나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원천은 세차게 흘러나왔으며
자비의 바다는 온 세상을 위해 열렸습니다.
오, 헤아릴 길 없는 하느님의 자비이신 생명의 샘이시여,
주님께선 저희를 위하여 온 세상을 감싸시면서
당신 자신을 비우셨나이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님의 성심에서
오, 세차게 흘러나온 거룩한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일기 718)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일기 1572).
나의 수난의 공로 안에서 나에게 청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 1320)"

자비의 시간은 명백히 오후 3 시에 연결된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바로
드려져야 하며 우리의 청원은 그분의 비탄스런 수난의 공로를 간청해야 한다.

축일: 10 월 5 일 성녀 파우스티나 St. Faustina Kowalska
<http://blog.daum.net/ofsangela/15973609>



묵주로 드리는 하느님 자비의 기도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1935 년 빌니우스에서 묵주로 드리는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받아쓰게 하셨다. 이 기도의 가치와 효력을 그녀에게 드러내 주셨던 이 계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기도예 약속도 부과하셨다.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영혼과 신성' 을 바친다. 우리는 세상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그분의 희생과 우리 자신을 결합시킨다. 하느님 아버지께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들으시기에 가장 설득력있는 논증을 사용한다.

이 기도를 바치며 구송하는 '우리'라는 말 안에서 '우리'는 그가 이 기도를 바칠 때 지향을 두는 그 사람이거나 또는 지향을 두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그 사람이다. '온 세상'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가리킨다.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며 의탁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은총을 얻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조건이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이 기도를 바치며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베풀어 주는 것이 나는 기쁘다.(일기 1541)
만일 그것이 내 뜻에 부합한다면"(일기 1731)
그 특별한 은총은 임종의 시간에도 부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죽음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갈 때 이 기도를 바쳐줄 (누군가) 그의 옆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역시)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제들은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죄인들에게 이 기도를 권하게 하여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번이라도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일기 687)
예수님께서는 생애동안 단 한번이라도 완전한 의탁의 태도와 겸손, 진실함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

Our Lord said to Saint Faustina:

Encourage souls to say the Chaplet which I have given you ... Whoever will recite it will receive great mercy at the hour of death ... When they say this chaplet in the presence of the dying, I will stand between my Father and the dying person, not as the Just Judge but as the Merciful Savior ... Priests will recommend it to sinners as their last hope of salvation. Even if there were a sinner most hardened, if he were to recite this chaplet only once, he would receive grace from my infinite mercy. I desire to grant unimaginable graces to those souls who trust in My mercy ... Through the Chaplet you will obtain everything, if what you ask for is compatible with My will.



예수님 :

“은총은 나의 자비심의 샘에서 오직 한 가지 그릇으로 퍼낼수 있다. 바로 그것은 의탁이다. 의탁할수록 더욱 더 받게 된다.”

“나는 나 자신을 너희들의 의탁에 의존한다. 너희들이 의탁이 크다면 그만큼 나의 관대함도 한계를 모르게 된다.”

“오,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지! 그러한 영혼은 내가 거룩하고 의롭다고는 말하면서 내가 자비롭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내 선행도 믿지 않는다. 악마들까지도 내 정의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은 나의 선행을 믿지 않는다. 내 마음은 자비라는 칭호에 기쁨을 느낀다. 하느님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자비라고 선포하여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은 자비로 넘쳐 있다”

“내 딸아, 내 마음은 자비,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라. 이 자비의 바다로부터 온 세상에 은총이 흘러나간다. 내게 다가 온 영혼치고 위로를 받지 아니한 자 없다. 모든 불행은 내 자비의 바다에 묻히고, 이 샘에서 구원과 성화의 은총이 흐를것이다.”

“나의 자비의 은총은 오직 하나의 그릇, 즉 의탁에 의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더욱 더 의탁할수록 더욱 더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

끝없이 의탁하는 영혼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나의 은총이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부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많이 청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들에게 더욱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영혼들이 적게 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좁힐 때 나는 슬프다.”

(일기 1578)

절망하는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 이것을 기록하여라.

영혼이 그 죄의 심각함을 보고 깨달을 때, 그의 끝없는 비참함이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이 그의 눈앞에 펼쳐질 때 절망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뛰어드는 아이와 같이 의탁과 함께 내 자비의 품으로 달아들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내 동정심 깊은 마음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지며 내 자비의 첫번째 통로를 갖는다. 내 자비를 청하는 영혼이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한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선행에 신뢰를 두는 영혼을 나는 특별히 기뻐한다.”(일기 1541)

“영혼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어라. 어떤 영혼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썩어가는 시체와 같아서 더 이상 회복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영혼도 하느님과 함께라면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자비의 기적을 이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너희는 헛되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일기 1448)

“내 딸아, 내 자비의 샘인 고해성사를 받을 때, 내 성심에서 흘러 나오는 피와 물이 네 영혼을 채우고 너를 고귀하게 만들 것이다. 고해성사(창회) 때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자비에 빠져들어라. 네 영혼에 무한한 은혜를 내릴 것이다. 이 자비의 샘에서 자비를 퍼 올릴 수 있는 그릇은 신뢰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여라. 신뢰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 관용에는 한계가 없을 것이며 겸손한 영혼에게는

은총의 급류가 흐를 것이다. 교만한 영혼에게는 가난과 비참함만이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은총은 교만한 사람을 피해 겸손한 사람들을 향해 흐르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비의 행동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자비를 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 둘째, 말, 셋째, 기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내게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비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돈독한 신앙을 가져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자비로운 행위를 할수있는 물질적 여유가 없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을위해 이말을 기록하여라. 특별한 허가도 창고도 필요 없는 정신적인 자비가 더욱 값진 것이라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보화를 쌓는 방법을 안다면 심판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비로 내 심판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영혼들의 전 생애를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보살펴 줄 것이며, 그들의 임종 시에 나는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일기 1075)





이 성화는 1931년 2월 22일 폴란드 프워츠크에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환시를 통해 계시된 상본이다.

1931년 2월 22일, 파우스티나 수녀는 그날 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녁때 방에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계신 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은 들고 강복을 하셨습니다. 가슴쪽 옷이 열린 곳에서는 두 줄기의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왔는데 한 줄기는 붉은 빛이었고 한 줄기는 흰 빛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유심히 주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움에 떨렸을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일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 대로 상본을 그리고 '예수여 저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새겨 넣어라."

그후, 영신 지도신부의 요청에 따라 파우스티나 수녀는 주님께 이 상본의 두 빛줄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다.

"두 빛줄기는 피와 물을 나타낸다.

하얀 빛은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나타내며,

붉은 빛은 영혼의 생명인 피를 나타낸다.

이 두 빛줄기는 나의 고통스러운 심장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열려졌을 때 나의 지극히 자애로운 자비심의 깊이로 부터 솟아 나온 것이다.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 거처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노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화를 통해서 나는 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줄 것이다. (I. 18, 138)

그러니 모든 영혼이 이 성화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나는 이 상본을 공경하는 영혼은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부터 특히 죽을 때 이미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약속한다.

나는 그것을 나 자신의 영광처럼 옹호하겠다.

나는 그들이 은총의 샘에 와서 은총을 받을 그릇을 제공할 것이다. 그 그릇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이 새겨진 이 상본이다. 먼저 이 상본을 너희들의 성당에 모시고 공경하고, 그 다음 온세상에 전파하여 공경하기를 바란다."



자비 축일(부활 제 2 주일)에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

어떤 날에 파우스티나 수녀는 심한 통증으로 잠을 잤는데 그통증은 세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통증이 심해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주위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모두 맡기기로 하였다. 이 고통을 겪은 후 파우스티나 수녀는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 하느님 자비의 축일에 대한 메시지를 일기에 기록했다.

“내 딸아, 온 세상에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려라.
내 자비가 모든 영혼들, 특히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내 깊은 자비의 바다가 열릴 것이다.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내릴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는 사람은 모든 죄와 벌을 사면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은총의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 자비는 너무도 엄청나서 누구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나의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내 자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원히 내 사랑과 자비를 명상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축일은 내 깊은 자비심에서 유래한다.
부활 후 첫 주일에 자비의 축일을 거행하기를 원한다.
인류가 내 자비의 샘에 찾아 들기 전까지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부활 후 첫 주일을 자비의 축일로 삼고, 자비의 행동을 보여라.
이 축일은 나의 지극히 자애로운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의 자비심의 깊이를 확증하는 것이다.
이 축일을 부활 후 첫주일에 성대히 지내기를 바란다.
또 이 자비심 축일은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와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
이날 바로 나의 깊은 자비심의 심연이 열린다.
나의 자비심의 샘으로 가까이 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바다를 쏟아주겠다.”

"자비의 신심으로 축일을 장엄하게 거행하고 내 모습이 그려진 상을 공경하여라.
나는 이 상을 통해 많은 은총을 내린다. 그리고 이 상은 내 자비를 상기시킬 것이다."

“그날(자비축일)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는 영혼들은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얻을 것이다.
그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영혼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 말도록 하여라.”

“ 합당한 영성체는 모두 성체의 신비가 모든 은총의 원천이 된 이후
영세 때의 무죄함을 원상 복귀시키게 되는 효력을 낼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2000 년 5 월 5 일에 부활 제 2 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 로 제정
하고 이날 미사 때에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는 기도를 바칠 것을 당부했다.

